



2004 서울국제도서전

국내 유일의 국제도서전인 서울국제도서전이 올해 10회를 맞아 지난 6월4일부터 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태평양홀, 인도양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의 개막식에는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구니조야 사쿠라 일본서적출판협회장,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장, 이심 잡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책으로 세계로 미래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번 도서전에는 20개국 328개 출판사가 참가, 지난해(18개국 192개사)에 비해 규모가 확대됐다. 전시 규모도 4400평 686개 부스(국내 405개, 외국 77개)로 지난해(240여개)보다 커졌다.

올해 행사는 도서전시 외에도 전자책 산업전(2개국 22개사 80부스), 북아트전(11개국 40개사 40부스)를 비롯해 세계금서특별전 등의 특별전과 부대행사(6종 84부스)도 매우 활발했다.

특히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이번 도서전에 문화관

'책으로 세계로 미래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번 도서전에는 20개국 328개 출판사가 참가, 지난해에 비해 규모가 확대됐다.

광부의 지원으로 인쇄문화관을 조성해 과거에서 현재, 미래까지의 인쇄문화를 홍보했다.

인협은 직지심체요절과 훈민정음, 월인천강지곡 인쇄판으로 고인쇄체험 행사를 가졌으며 인쇄역사와 현재의 인쇄문화산업 현황을 판넬과 영상물을 통해 홍보했다.

또 지난해 아시아인쇄물컨테스트에서 수상한 제품들을 비롯해 2005년 캘린더와 특수인쇄물 등을 전시,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전체 관람객의 수는 18만여 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였지만 단행본 출판사의 참여도가 증가함으로써 일반 관람객의 숫자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처음으로 마련된 세계북아트페어전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규모 확대 · 행사 다변화로 볼거리 풍성 인협, 고인쇄체험관 운영 ... 발길 쇄도

저작권 상담 및 체결현황

저작권 상담 실적도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늘었다. 저작권 상담 및 계약현황은 국내관이 314건 상담에 67건 계약, 국제관이 1428건 상담에 275건 계약됐으며 이는 전년도(국내관 282건 상담에 51건 계약, 국제관 1352건 상담에 223건 계약)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다.

또한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홍보부스를 비롯하여 독일출판사(로볼트출판사)가 개별적으로 참여했으며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태국, 대만 출판사가 꾸준히 참가함으로써 저작권 거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곳곳에서 벌어진 다양한 볼거리

주최측은 매년 다양한 형태의 특별전과 부대행사를 선보였는데 올해에는 세계금서특별전,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홍보관, 볼로냐라가짜상 수상작 특별전 등을 마련하였다. 특히 세계금서특

서울국제도서전에는 매년 다양한 특별전과 부대행사를 선보였는데 올해에는 세계금서특별전,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홍보관, 볼로냐라가짜상 수상작 특별전 등을 마련하였다.

별전은 금지되었던 책을 통해 한 시대의 역사와 사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또한 지난 3월 초 선정된 한국의 책 100권을 중심으로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및 주빈국 행사를 일반인에게 홍보했던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홍보관도 많은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전시장 내에 설치된 이벤트관에서는 매일 한 편의 영화를 상영하였는데 원작 도서를 함께 진열함으로써 문학과 영화의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며 참가사의 소규모세미나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자사 출판물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04 서울국제도서전



북아트페어전에는 각종 제책과 함께 활판인쇄기를 이용한 인쇄하기 등의 코너가 마련됐다.



협력 전시회도 풍성

(1) 전자책산업전 : 올해 3년째 맞이하는 '2004 한국전자책산업전'은 세계적으로 시장규모나 기술 면에서 가장 앞선 우리나라 전자책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국내 전자책 서비스업체와 기술관련업체가 대거 참가하고 특별전으로 국내외 전자책 관련 첨단기술을 소개하는 기술관,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우수전자책을 전시하는 콘텐츠관, 무선인터넷을 통해 전자책을 시연하는 모바일관, 어린이용 멀티미디어 전자책을 소개하는 어린이관, 전자도서관 구축 솔루션과 사례를 소개하는 라이브러리관으로 구성됐다.

(2) 북아트전 : 단순한 정보와 지식전달 매체로서의 기능을 뛰어넘는 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북아트전을 마련, 책의 조형적 의미를 되새기고 디

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책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했다.

(3) 인쇄전 :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홍보를 중심으로 고인쇄문화시연 및 체험행사를 개최했으며, 관련 영상물도 상영했다. 개막식 직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고인쇄문화 체험장을 직접 방문, 직지심체요절 체험행사를 가졌다. 또한 지난해 11월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안 프린트 어워즈'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한 각종 상을 휩쓴 국내 6개 인쇄업체(한국AP, 홍보컴, 광인사, BGI, 하림씨엠, 해인기획)들의 수상작품과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수인쇄물들을 전시,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4) 잡지전 :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잡지 전 분야를 망라한 약 1500여 종의 잡지를 전시, 국내 잡지산업을 홍보했다.

각종 세미나 전문성 강화

2004 서울국제도서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미나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도서관협회의 '한 도시

개막식에 참석한 대통령부인 권양숙 여사가 인쇄문화관을 방문 '직지'를 인쇄한 후 활짝 웃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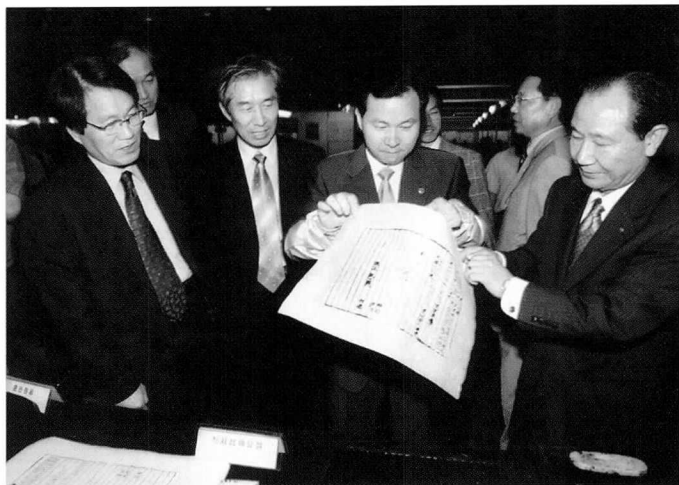
한 책 읽기 운동의 시범운동 경과와 향후 발전 과제 모색에 관한 세미나', 출판유통진흥원의 '출판유통현대화사업세미나'는 출판 전문가 그룹의 호응을 얻었으며 '독일 문화계 인사 초청 강연회 및 대담'과 한국과 독일의 문학 출판 관계자들의 토론회였던 '독일에서의 한국문학 세미나'는 한·독 출판교류의 활성화에 시금석이 되었다. 또한 '호주 현대의 북아트'는 전공자 및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대국민 문화페스티벌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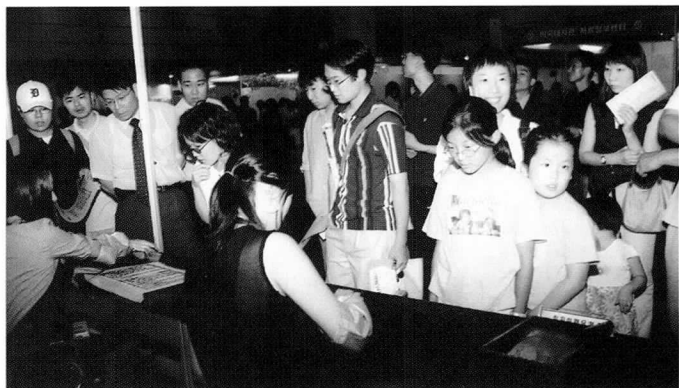
아동·교육 분야의 성장이라는 한국 출판계 및 세계 출판계의 경향을 반영하듯 올해 도서전도 이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특히 전시장을 인도양홀로 확대, 아동·교육 전문 전시장으로 조성하였는데 이로써 참가자들은 자사의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으며 전시장 환경도 개선되어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한편, 출협은 2005년에는 단행본 출판사 및 외국 우수출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콘텐츠를 강화함으로써 도서전을 대국민 문화페스티벌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조갑준 기자〉



▲ 인쇄문화관을 방문한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이 민재기 인협회장과 함께 직지 인쇄본을 들여보이고 있다.



▲ 국제도서전 최고의 인기코너는 인쇄문화협회에서 마련한 고인쇄체험장이었다.